

여성 농민정책의 현황과 방향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 농민정책의 현황 2. 여성 농민정책에 대한 평가 3. 새로운 농업환경과 여건전망 4. 여성농업인의 미래상 5. 여성농민의 현재 위상과 정책 여건 6. 향후 여성농민 정책의 방향

1. 여성 농민정책의 현황

□ 관련 법제의 마련

- '99년 12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근거 마련
- 2001년 12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
- 2002년 7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 2000년 10월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발표
- 매년 말 당해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발표
- '98년 8월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 정책 추진체제 및 인프라의 구축

- '98년 3월 농림부내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 2001년 10월 농림부 홈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열린 광장" 개설 : 관련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지원
- 여성농업인 정책개발 연구사업: 99년 이후 매년 1억원 예산범위
- 2001년 10월 농림공직자 대상 여성정책반 개설 및 운영

□ 여성농업인 전문농업인력 육성

- 후계여성농업인 선정 우선권 부여 등 선발기준 개선
 - 선정비율: '97년 5.8%에서 '00년 18.4%, '01년 14.1%로 증가
- 여성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의 기계화·자동화 추진 (36종)
-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의 내실화
 - 여성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설치
 - 여성농업인 눈높이 교재 4개 분야(농업경영, 리더십 개발, 농촌자녀 교육과 가족, 여성문화와 건강) 개발 및 32 강좌
 - 여성농업인 교관반 개설(2박3일, 6회)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 농가도우미 제도의 도입
 - 출산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의 영농대행 이용료 국고지원
 - '00년 68개 시군→'01년 87개 시군→'02년 163개 시군
- 모자농업인의 인문계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
 - '00년 연구용역
 - 여성농업인센터 활용 보육사업 및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운영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 농림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97년 5%에서 '01년 30.2%로 증가)
- 여성농업정책 전문가 인명부 DB(400명)
- 농촌지역의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000년 연구용역사업)
- 여성농업인 대회 개최
- 농협 등에 비상임 여성이사 선임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01년 4개소(경남 진주, 경북 안동, 충남 서천, 충북 영동)
 - '02년 18개소(9개도 2개소씩 예정)

□ 기타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농촌·도시 교류 활성화('01년 7개 단체 지원, 151백만원)
- 국민안전 식생활 실천 교육·홍보사업 추진('01년 12개 단체 지원, 200백만원)

2. 여성 농민정책에 대한 평가

- 50년 농정사에서 여성농민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한 시점은 현 정부('98) 이후라고 볼 수 있음
- '99년 이후 3년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다양한 정책메뉴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총예산은 '02년 현재 145.9억원으로 당해연도 농업관련 총예산의 0.2% 수준임. 여성농업인관련예산의 80% 이상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예산이고,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과 농가도우미제도에 각각 7.4%, 7.1%이고, 나머지 여성농업인관련 정책은 대부분 비예산 및 저예산 사업인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되므로, 지자체가 예산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반응을 나타낼 경우 사업이 실시되기 어려움. 「여성농업인센터」 사례참조.

<표 1> 2002년도 농업관련 총예산과 여성농민관련 예산

농업관련 총예산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					
	자녀 학자금	기타복지 관련	농가 도우미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여성농업인 센터운영	
8조 1,856억	118.8억	5.2억	10.4억	0.7억	10.8억	
	100.0%	81.4%	3.6%	7.1%	0.5%	7.4%

3. 새로운 농업환경과 여건전망

□ WTO/UR 체제의 확대 강화

- UR협정에 따른 각국의 농업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00년 또는 2004년 이후 추진할 새로운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위한 WTO의 뉴라운드 2002년까지의 일정으로 재개됨.
 -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개도국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쌀관세화 유예기간 연장도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2004년 이후 우리 농업은 현재보다 더욱 큰 폭으로 개방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WTO/UR체제는 자유시장경제원리의 큰 틀 속에서 우리 농업의 세계화, 거시화, 네트워킹화를 더욱 촉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한·칠레 FTA 협상 사례

□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농식품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요구 증대

- 환경보전과 식품안전을 비롯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농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농업이 첨단기술·자본·정보가 집약된 지식산업으로 발전함에 따라 1차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지만(2000년 4.1%), 생산·가공·유통

통 및 관련 산업을 포함한 농업의 비중은 2004년에도 16%를 유지할 전망이다.

-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농식품 생산을 가능케하는 친환경적이고, 생태균형적인 건강한 예코농업으로서 환경농업의 실천을 요구함.
- 전통문화자산의 체계화 및 녹색관광(green tourism), 농촌지역 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 등으로 전통문화와 농업환경이 상품화함.
- 주5일 근무제 확산의 영향
- 도시화의 지속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농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맛과 멋을 즐기고 안전과 영양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바뀜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소비자중심」 농업으로의 전환이 전개되고 있음.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핵가족화, 주거환경의 변화 등은 편의식품,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며, 농산식품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식생활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개방의 물결과 함께 강화된 시장경쟁으로 농업인들도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으며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임이 시작함.

□ 정보·기술·지식기반사회의 이행

- 정보와 기술, 지식이 핵심 생산요소가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고부가가치지식농업이 효율적으로 정착·확산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요구됨.
- 고부가가치 지식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분야에서의 R&D 투자가 확대되며, 농촌의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농업·농촌의 정보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감.
- 농업생산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사이버마켓이 빠른 속도로 실물시장을 대체해나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과 마케팅에서 신지식농업을 이끌어 나갈 정예인력의 육성이 시급함.
-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도농간·남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접근센터의 확충과 여성과 노인 등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주요지표 전망

- 앞으로의 개방화 진전을 감안할 때 향후 10년간의 농업구조는 지난 반세기의 변화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됨.1)

<표 2> 성별 연령별 농가인구의 전망: 2000년, 2005년

단위: 명, %

	2000년				2005년			
	남성	여성	계	여성비율	남성	여성	계	여성비율
계	1923231	2066783	3990014	51.8	1417036	1588017	3005053	52.8
0-4세	62093	55423	117517	47.2	46911	42643	89554	47.6
5-9세	86605	54489	141094	38.6	81269	73865	155134	47.6
10-14세	106295	98513	204808	48.1	44772	37499	82271	45.6
15-19세	148609	144745	293354	49.3	84113	92695	176808	52.4
20-24세	97343	100323	197666	50.8	42149	70648	112797	62.6
25-29세	129601	81419	211020	38.6	102450	61886	164336	37.7
30-34세	86228	66352	152580	43.5	55808	71229	127037	56.1
35-39세	94865	99417	194282	51.2	80765	54224	134989	40.2
40-44세	117538	136297	253835	53.7	77006	67617	144622	46.8
45-49세	120785	134251	255036	52.6	100859	105257	206116	51.1
50-54세	134802	146987	281789	52.2	107095	117689	224784	52.4
55-59세	146695	215844	362539	59.5	106798	107182	213980	50.1
60-64세	198668	225154	423821	53.1	131140	130501	261642	49.9
65-69세	175769	215003	390772	55.0	139398	247361	386759	64.0
70-74세	106944	127060	234003	54.3	114079	137733	251812	54.7
75-79세	67624	80615	148239	54.4	54953	83670	138623	60.4
80세 이상	42766	84892	127659	66.5	47471	86318	133789	64.5

자료: 김영옥·양승주(2000),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시안)

- <표 2>의 남녀별 연령별 농가인구 전망에 의하면2)

- 세부 연령계층별로 다소의 변동을 나타내지만 대체로 40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 2000년도에 이어 2005년에도 여성비중이 낮은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신규여성 농업인의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됨.
- 핵심 전문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해야 할 정책대상 인구는 계획기간중 3만여명 내외 수준으로 전망됨(30-44세 연령층 여성의 15%).
-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져, 소득보장 및 보건의료를 비롯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 <표 3>의 추세에 의한 전망 결과, 농업주종사자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주종사자의 비율은 2005년에 52.4%로 추정됨으로써, 주력영농집단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함.

-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쌀 생산이 감소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채소, 과수 등 성장작목을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농업생산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주요 노동력으로서 여성농업인의 활력 증대와 21세기 농업·농촌이 요구하는 농업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표 3> 성별 연령별 농업주종사자 전망: 2000년, 2005년

단위: 명,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9), 「21세기 농업·농촌비전과 정책과제」.

2) ·농가 인구를 전망하기 위하여 채택된 경제성장률은 KDI의 전망치를 사용하였음.

· 2000년의 5.8%, 2005년 5.1%를 이용하여 이농률 조정계수(a)로 사용.

· 1990~1995년 사이의 이농률은 경제성장률이 7.1%일 때 달성된 것이므로 2000년 이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a/7.1 의 조정계수를 이용하여 순이농률을 구함.

	1995년 농업주종사자				2000년 농업주종사자				2005년 농업주종사자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여성비				여성비				여성비	
30세 미만	58455	39671	40.4	98126	41876	32295	43.5	74172	27767	24072	46.4	51840
30대	128166	157479	55.1	285645	97284	114893	54.1	212177	75014	85268	53.2	160281
40대	197703	236701	54.5	434404	168579	207868	55.2	376448	126246	133477	51.4	259723
50대	320509	400476	55.5	720985	228341	307444	57.4	535785	173228	189672	52.3	362900
60대	336930	365070	52.0	702000	343097	379922	52.5	723018	248339	324428	56.6	572767
70대 이상	168313	130676	43.7	298989	179505	146894	45.0	326400	178028	156253	46.7	334280
계	1210076	1330073	52.4	2540149	1058683	1189318	52.9	2248000	828621	913170	52.4	1741791

4. 여성농업인의 미래상

□ 농업생산과 경영을 담당하는 전문농업인으로 성장

- 21세기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농업을 이끌기 위해 이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적생산 뿐 아니라 마케팅과 판매, 그리고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적 역할이 요구됨. 따라서 경영주 혼자서 일하는 단절된 영농이 아니라 동반자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십' 영농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임.
- 특히 중소 가족농이 새로운 농업환경이 요구하는 환경보전과 식품안전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대규모 경영체에 비해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가족농의 혁신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짐.
-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의 절반을 수행하는 생산자로서 뿐 아니라 농가단위의 복합적 농업경영체를 이끄는 경영인으로서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 다양한 경영주체들이 참여해 계약형태로 이루어지는 생산과 유통방식의 변화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해 치밀하게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짐.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이 가진 비교우위를 살려 공동 경영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됨.
 - 농업경영의 관리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며, 농산물의 수확이후 선별, 포장, 저장, 가공 등 수확 후 제2생산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지대해짐.
- 또한 향후 농가의 점영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중장년층 여성경영주의 비율 또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여성농업인은 21세기 농업 발전의 주체로서 기업가적 정신과 경영능력, 그리고 영농기술을 결합하여 전문 농업을 이끌어 나갈 것임.

□ 농업·농촌사회의 발전 주체로서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이들의 풍부한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혁신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임.
 - 생산활동과 가정생활에서 부부 공동 경영과 공정한 역할 분담의 평등 마인드가 확산됨.
 - 농업·농촌의 보수성 극복은 여성농업인의 전문가적 성취를 제고하여 농업 인력 전체의 활성화를 지원할 뿐 아니라 개방체제하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임.
 - 여성과 남성 농업인 모두가 지역 농업과 공동체 미래의 방향을 정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책임을 공유함.
- 친 환경 농업의 시행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함.
 - 녹색 생산·녹색 소비를 주도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농촌 공간을 가꿈.
 - 사라져가는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농촌지역의 풍요로움과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앞장서 농촌의 환경과 문화의 상품화를 주도해나감.

- 농촌의 지역공동체 살리기에 앞장섬.
- 여성농업인 단체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농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역할을 함.

5. 여성농민의 현재 위상과 정책 여건

- 현재 여성농업인들은 농업생산의 필수 노동력이지만 중심인력으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임. 그러나 농업경쟁성의 활동이나 인적 자본 수준에서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핵심 전문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도록 함.
 - 전문적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거나 이를 희망하는 여성은 30-40대 여성중 15% 내외의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이들은 농업생산에서 적극적 파트너일 뿐 아니라, 배우자와 다른 작목생산에 전업하는 여성들도 있음. 과학영농에의 관심도 높고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의사결정권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로 핵심 전문여성농업인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계층임.
 - 한편 절반이 넘는 여성농업인들이 실제 생산참여여와는 상관없이 전문적 영농인 보다는 영농보조자나 농가주부로 자신의 역할을 제한, 인적자본 투자에 소극적임. 전문농업인으로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밝혀 제거하는 한편, 이들 집단 고유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여성농업인이 남성과 동등하게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정당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농가와 농촌사회 구성원은 물론 정책담당자의 남녀차별의식이 변화되어야 함. 그러나 평등의식의 확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음.
 - 여성농업인은 생산활동의 주요 노동력으로 참여하지만 가사일 부담이 줄지 않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며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 이는 여성농업인의 인력개발을 저해하며 생활만족도와 농업정책의지를 크게 낮춤.
 -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은 21세기 농업·농촌의 변화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됨. 단순히 제도적 개선차원을 넘어 문화적 걸림돌까지 제거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기간 중에는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반 정비에 주력하며,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우선순위를 둬.
 - 예컨대 '재산의 공동 소유권' 보장과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저항과 반발이 큰 만큼, 계획기간 중에는 이를 위한 민간부문의 홍보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함.
- 농촌지역에는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부녀회, 여성농민회 등 여성농업인 단체가 많으나 회원 일반의 활동이 저조하며, 조직 목표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단체가 많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개발에 역력이 미치지 못함.
 - 21세기 변화에 맞는 다양한 여성 조직들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함.
 - 여건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나, 과거와 같이 동원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관계 정립을 지양함. 공급자중심의 농업정책에서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고객중심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단체를 대등한 농정 파트너로 인식해야 함.
 - 여성농업인단체의 역량에 맞게 민간위탁을 비롯한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농정의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 원칙을 동시에 추구함.
- 농업부문 재정지원의 효율화, 경쟁력 향상 위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내외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여성농업인 다수의 주변화(marginalization)가 심화될 우려가 크고 여성농업인정책이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개원 확보 및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 경쟁력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농업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중소농·중산간지역의 농업이 쇠퇴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업·농촌이 지닌 다원적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동시에 도시문제 발생 및 농촌 공동화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임.
 - 농업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농업인·소비자·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농정을 시행하도록 함.
 - 여성농업인 단체도 시간 소홀히 해온 도시여성단체와의 사업교류 및 연대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지 기반 확대에 많은 투자가 필요함.
 - 농림부 내부에서도 경쟁력 향상 정책만으로는 농업생산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여성농업인 정책과 같이 경쟁

- 력향상정책을 보완하고 그 효과를 상승시키는 정책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함.
-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과 직결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 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제도화해야 함.

6. 향후 여성농민 정책의 방향

□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지위향상 촉진

-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 다양한 역할수행을 통해 농업과 농촌사회의 주체로서 역할 해 왔음.
- 그럼에도 농가 내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음을 반성하며, 이들의 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아울러 미래 농업경연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남녀평등의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지원하도록 함.

□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 21세기 농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인력의 총체적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가족농의 혁신을 주도할 여성농업인의 잠재력 극대화가 핵심과제로 부각됨.
- 여성농업인이 기업가적 마인드와 경영능력, 그리고 영농기술을 결합한 전문농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확보 방안과 전문교육시스템의 구축에 적극 투자하도록 함.

□ 새로운 농업환경에의 도전 역량 강화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신기술·지식기반 농업으로의 이행과 친환경의 농업의 확산, 유통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 (agri-business)의 발달 등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농업관련산업에의 여성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획기적인 여성농업인 인력개발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여성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이 강화되어야 함.

□ 안정적 영농지원체제 구축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의 중단을 보상하고, 자녀 보육 및 교육, 의료복지, 문화 등 불편한 생활환경의 개선이 시급함.
- 특히 젊은층 여성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도 영농지원체제의 구축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 여성농업인 주류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농정시스템 구축

- 관주도의 농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토대로 열린 농정을 적극 실천하면서 농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해를 높여나가야 함.
- 농정 전반에 걸쳐 여성농업인의 이해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의 여성농업인 정책담당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정책 담당자의 평등마인드를 제고하고 아울러 연구개발 등 정책개발인프라를 확충함.
- 여성농업인발전기금을 조성 및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농촌의 남녀파트너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지속적 시행을 보장함.